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81-114
<https://doi.org/10.29212/mh.2018..109.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오리엔탈리즘 관점으로 본 미군의 대반란전 실패 요인

: 이라크 전쟁사례를 중심으로

박병찬*

1. 서 론
2. 이론적 검토 및 연구방법
3. 이라크 전쟁 內 전투사례 비교 분석
4. 대반란전 실패 요인 분석
5. 결 론

1. 서 론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피랍된 4대의 항공기가 미국 국방부와 세계무역센터(WTC)에 충돌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과정

하면서 미국인들은 경악하였다. 이후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이 사건을 ‘미국에 대한 명백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다음날인 9월 12일에는 테러에 관련된 국가 및 개입자들에 대해 철저히 보복할 것을 천명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¹⁾을 거쳐 2003년 3월 20일에는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였다. 미군은 첨단화 되고 정보화된 군사력을 이용하여 이라크 정규군을 신속히 격멸하고 전쟁을 종결하였다. 5월 1일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에서의 주요 전투는 종료되었다”는 선언에 따라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²⁾

미군의 이라크 점령 이후 제대로 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이 이라크 사회는 무질서 속으로 빠졌고, 반군 세력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연합군 임시 행정청(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의 ‘이라크 바트당 해체’와 ‘이라크 군’ 해체 명령은 이들을 반군세력에 가담케 만들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미군은 그들 스스로 성공적으로 전쟁을 종결하였다고 발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나지 않는 전쟁과 마주하게 되었다.

미군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대반란전 실패 경험을 겪은 이후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없었으며, 결국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 또한 대반란전에 대비한 훈련이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상

1)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대통령 부시(George Bush)는 탈레반(Taliban)에게 오사마 빈라덴(Osama bin Laden)의 인도와 알카에다(Ai-Queda)의 축출을 요구하였다. 탈레반은 빈라덴이 9·11 테러에 개입한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도를 거부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의 인도 요구도 묵살하였다. 결국, 미국은 2001년 10월 7일 영국과 함께 항구적 자유 작전을 개시하였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에서 탈레반과 맞서 싸웠던 북부 동맹이 두 국가의 연합에 참여하였다.

2) 손석현, “대반란전 사례연구 :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대반란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6), pp.186~187.

태였다. 이로 인해 미군은 이라크에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군은 왜 이라크 전쟁에서의 대반란전에서 실패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이라크 전쟁에서 있었던 전투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패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군의 대반란전 실패의 요인으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바라보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타자화(他者化)’³⁾의 관점에서 살펴 볼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이라크인에 대한 ‘타자화’로 인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시각으로 이라크를 바라보았다. 이는 결국 토착주민과 유리된 양상을 보였고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었다는 관점에서 접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타자화에 따른 토착 세력의 지지여부가 대반란전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 할 것이다.

2. 이론적 검토 및 연구방법

가. 이론적 검토

1) 기존연구 고찰

대반란전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서양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손석현의 “대반란전 사례연구 :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대반란전”에서는 말라야 비상사태와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사례에 대한 대반란전 사례 분석을 통해

3) 특정 대상을 말 그대로 다른 존재로 보이게 만듦으로써 분리된 존재로 부각시키는 말과 행동, 사상, 결정 등을 말한다.

한반도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성훈의 “대반란전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 관련 행위자 요인을 중심으로”에서는 효과적인 대반란전 수행을 위해 아프간 전쟁 사례를 바탕으로 토착정부, 반군그룹, 외부개입 세력이라는 행위자 모델을 중심으로 대반란전을 설명하였다.

한편,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다비드 갈룰라(David Galula)는 “Counterinsurgency : Theory and Practice”를 통해 반군의 무력활동에 대응한 대반란전 교리를 정리하였다. 갈룰라는 대반란전에 대해 “대반란전의 작전 목표는 주민이 되어야 하며,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작전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았다. 또한, “점령한 지역을 장악하여 치안을 확보하고 재건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⁴⁾

이라크 다국적군 치안전환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무수행을 하였던 퍼트레이어스(David Petraeus)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반란전 교범인 FM 3-24 ‘Counterinsurgency’를 발간하였다. 퍼트레이어스는 교범에서 “대반란전이 공격과 방어 및 안정화 작전을 혼합한 것이고, 비군사적 기구와 연합된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

코데스만(A. Cordesman)은 미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대반란전 실패 원인을 국가전략 부재, 미군의 대반란전 임무수행 역량 부족, 반란군 제압을 위한 적기 상실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⁶⁾

마지막으로, 킷슨(F. Kitson)은 대반란전의 성공에 대해 강력

4) A. A. Cohen, Galula, “*The Life and Writings of the French Officer Who Defines the Art of Counterinsurgency*”, PRAEGER(2012), p. x.

5) David Petraeus, James F. Amos, “*Counterinsurgency Field Manual*”, Headquarters Department of Army(2006), p. ix.

6) Cordesman, H, “*The Lessons of Afghanistan*”. CSIS Policy Report(2006), pp.34~35.

한 군사력을 사용한 반군 제압을 통해 해당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프랑스의 여러 대반란전에 참여했던 트링키어(R. Trinquier)도 반군그룹을 직접 무력화시키는데 필요한 외부 군사능력이 성공의 핵심요소라고 말하였다.⁷⁾

2) 이론적 고찰 : 대반란전과 오리엔탈리즘

가) 대반란전의 정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종결됐다”고 선언한 5월 1일 이후부터 미군은 이라크 정규군이 아닌 반군세력들의 ‘반란전’에 대응한 ‘대반란전’에 직면하였다. ‘대반란전’과 ‘반란전’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반란전’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수행 개념이 ‘대반란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란(反亂, Insurgency)’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지도자 따위에 반대하여 내란을 일으키는 행위”⁸⁾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미 교범에서는 ‘반란’을 정의함에 있어 “한 지역의 정치적 통제를 획득하거나 무력화 또는 변화시키기 위한 전복 및 폭력의 조직적 사용(The organized use of subversion and violence to seize, nullify, or challenge political control of a reg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⁹⁾

이와 상반되는 ‘대반란(對反亂, Counter Insurgency)’에 대해서는 육군 야전교범 ‘3-0-1 군사용어사전에서 “현존하는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을 가지고 자행된 전복활동 및 무력행사를 격

7) 이성훈, “대반란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관련 행위자 요인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3호(2015), p.100.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2008),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e1ee3a3d2e841128657c40b887cb936>(검색일 : 2018. 10. 22)

9) US Joint Chiefs of Staff, “JP 3-24 Counterinsurgency(2013)”, p. ix.

되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취하는 군사, 준군사, 정치, 경제, 심리 및 대민 활동”¹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반란전’에 대한 정의는 미군 교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미 교범에서는 ‘대반란전’을 “반란을 격멸하고 봉쇄하며 동시에 반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지는 광범위한 민간 및 군사적 노력(A comprehensive civilisan and military effort designed to simultaneously defeat and contain insurgency and address its root cause)”으로 정의하고 있다.¹¹⁾

대반란전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키라스(James Kiras)는 반란전을 “전력의 측면에서 비대칭적이고, 수행하는 주체가 약한 준국가적 단체이며, 국민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얻으면서 게릴라전을 사용하여 치고 빠지는(Hit & Run) 전술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싸운다”고 하였다.¹²⁾ 오닐(B.E O’Neil)은 반란을 “비통치 집단과 통치당국 간의 투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비통치 집단이 정통성이 없는 정치체제에 대항하여 정치적인 선전과 무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정통성을 내세우려고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³⁾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종합해 볼 때, 반란전은 국가나 지역 내의 합법적인 통치세력에 대항해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단체나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전복 활동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대반란전은 비합법적인 단체에 의해 시도되는 폭력적이고 반체제적인 활동을 일소시키고 이와 같은 단체를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정치·사회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10) 육군교육사령부, “야전교범 3-0-1 군사용어사전”, 육군본부(2012), p.145.

11) US Joint Chiefs of Staff, op. cit., p. ix.

12) James D. Kiras, *“Irregular Warfare : Terrorism and Insurgency”*, ‘Strategy in the Contemporary World’ (2007), p.170.

13) Bard E. O’Neil, *“Insurgency and terrorism : Inside Modern Revolutionary Warfare”*, Washington : Brassey’s(1990), p.25.

3) 오리엔탈리즘과 “타자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란 용어는 최초에는 동양에 대한 이론적 탐구로서 단순히 동양학을 의미했었으나, 사이드(Edward W. Said)에 의해 “동양에 대한 서구의 왜곡과 편견”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다.¹⁴⁾ 이러한 사이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리엔탈리즘’은 서구 제국주의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동양 침략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써 형성된 담론으로 볼 수 있다.

서구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동양을 ‘타자화’함으로써 동양을 신비화하고 지배하며 착취해 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타자화’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대상을 말 그대로 다른 존재로 보이게 만들으로써 분리된 존재로 부각시키는 말과 행동, 사상, 결정 등의 총집합”¹⁵⁾이다. 즉, 서양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동양의 이미지를 통해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19세기 유럽에서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완성한 오리엔탈리즘은 20세기 새로운 강대국이 된 미국으로 옮겨갔다.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 패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新 오리엔탈리즘’이라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여기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 미국이 세우고자 하는 ‘세계 제국’의 이념이 됐다고 지적한다.¹⁶⁾

14) 동양에 대한 서구의 가장 전형적인 왜곡사례는 동양을 비논리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게으르고 부패한 지역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러한 편견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서구인들의 인상비평 수준일 뿐, 실제 현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사이드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양을 보는 서구인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양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정책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국학자료원)

15) <https://ko.wikipedia.org/wiki/%ED%83%80%EC%9E%90%ED%99%94> (검색일 : 2018. 6. 7.)

16) 권형우, “오리엔탈리즘 : 동양이란 이름의 빛”, 연세춘추(2015),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8514>(검색일 : 2018. 6. 7.)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면서 정의의 전쟁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제거, 선제적인 테러와의 전쟁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오리엔탈리즘에서 제시된 ‘타자화’라는 개념을 빌려 미국의 전쟁 개입을 바라보면, 후세인 정권을 민주화되지 못하고 인권침해가 극심한 독재국가로 보았다. 또한, ‘악의 축’으로서 잠재적 테러 가능 국가로 부각시켰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타도하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여 독재자로부터 이라크 국민들을 해방시키고 테러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라크를 독재국가와 테러 가능 국가로 ‘타자화’ 함으로써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쟁과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서 설명하고 있다. 전쟁 이전부터 미 행정부가 ‘타자화’ 과정을 통해 형성한 이라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전쟁 이후 안정화 작전 간에도 미군의 이라크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로 연결됨에 따라 대반란전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착 세력의 지지를 이끌지 못하는 문제점에 빠졌다. 앞서 살펴 본 미국의 對 이라크 타자화 인식과 변화 양상을 정리해 보면 <표-1>와 같다.

<표-1> 미국의 對 이라크 타자화 인식과 변화 양상

구 분	對 이라크 타자화 인식	주 체	대 상
전쟁 이전	① 후세인 정권 : 심각한 인권침해, 민주주의 말살 ② 이라크 = 악의 축 : 대량살상무기 제조, 알카에다와 연계	미 행정부	이라크, 후세인 정권



전쟁 이후	① 이라크 인을 단지 ‘저항세력(Insurgents)’으로 인식	미군	이라크 인
-------	-------------------------------------	----	-------

나. 연구 방법

미군의 대반란전 실패의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바라보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타자화’의 관점에서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사례연구 방법을 사용 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 간 발생했던 4가지의 전투사례¹⁷⁾를 대상으로 대반란전 실패 요인 4가지로 비교분석 할 것이다. ‘타자화에 따른 토착 세력의 지지 여부가 대반란전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반란전 실패요인 선정에 있어서 ‘타자화 요인’¹⁸⁾ 2가지와 ‘일반 요인’¹⁹⁾ 2가지로 구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전투사례에서 실패요인으로써 ‘타자화 요인’이 ‘일반 요인’에 비해 얼마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라크 전쟁 간 미군의 대반란전 실패 요인으로써 먼저, ‘타자화 요인’으로는 ①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 ②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으로 분류하였고, ‘일반 요인’으로는 ① 미군 단독 작전수행, ②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수행으로 분류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타자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변수로서 대상에 대한 인위적 조작을 통해 ‘대상화(對象化)’ 또는 ‘물화(物化)’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았다. ‘타자화’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어사전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이 나에 의해 대상화(對象化)되고 물화(物化) 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⁰⁾ 즉, 한 주체(미군)에 의해 특정 대상(이라크인)이 다르게 왜곡되

17) 실패한 전투로서 1차 팔루자 전투와 합동진격작전, 성공한 전투로 2차 팔루자 전투와 탈 아파르 전투 선정.

18) 미군의 이라크인에 대한 타자화로 인해 대반란전에 실패하게 된 요인.

19) ‘타자화’와 관련 없이 군사작전 수행상의 문제점으로써 대반란전에 실패하게 된 요인.

20) [https://ko.dict.naver.com/entry/80340813/타자화/\(검색일 : 2018. 8. 10.\)](https://ko.dict.naver.com/entry/80340813/타자화/(검색일 : 2018. 8. 10.))

거나 대상화되는 경우 ‘타자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타자화 요인’으로서 미군은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간 이라크인을 단지 ‘저항세력(Insurgents)’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군을 공격하는 적대 세력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인식하였다.²¹⁾ 이는 결국 소탕의 대상으로 연결됨에 따라 이후의 ‘장악-건설’ 단계는 누락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은 이라크인을 ‘야만, 열등’의 대상으로 왜곡하여 인식하다 보니 작전 간 이들의 생명과 피해를 경시하였다. 이 두 요인으로 미군은 결국 토착 세력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은 이라크인을 저항세력으로서 소탕의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타자화가 이루어졌으며, ‘민간인 피해 미 고려’는 “이라크인에 대한 야만적이고 열등하다”는 이미지가 만들어낸 타자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 요인’으로서 ‘미군 단독 작전수행’의 경우 이라크인이 미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함에 따라 축출해야 한다는 반란군의 군사활동에 명분을 제공하였으며,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기존 냉전체제 하에서 지속되던 미국의 전면전에 대비한 재래식 작전수행 방식은 새로운 전쟁 양상인 ‘반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일반 요인으로 뽑은 2가지는 일반적인 군사작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라크인에 대한 별도의 인위적 조작이나 대상화(對象化)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위에서 살펴본 실패 요인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전투사례 별 실패요인 도출시 실패한 전투에서는 실패요인을 도출 할 것이고, 성공한 전투에서는 성공요인을 도출해서 분석 할 것이다. 앞서

21) 이근욱, “이라크 전쟁 : 부시의 침공에서 오바마의 철군까지”, 한울(2011), p.151.

살펴 본 미군의 이라크 전쟁 간 대반란전 실패 요인과 타자화 인식, 영향을 정리하면 <표-2>과 같다.

<표-2> 미군의 이라크 전쟁 간 대반란전 실패 요인

구 분	실패요인	타자화 인식	영 향
타자화 요인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	이라크인=Insurgents=소탕대상	토착세력 지지 획득 실패
	민간인 피해 미고려	이라크인=아만, 열등=생명 경시	
일반 요인	미군 단독 작전수행	.	반란군 군사활동 명분 제공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	소규모 반란전 대응 제한

3. 이라크 전쟁 內 전투사례 비교 분석

가. 1차 팔루자 전투

1) 전투개요

1차 팔루자 전투는 미군의 이라크 전쟁 안정화 과정 초기에 있었던 전투였다. 2004년 3월 31일에 팔루자에 있는 반군세력들이 미국 민간인 경호회사 직원 4명을 살해 후 사체를 훼손하였고 이를 전시하였다. 미국은 이 사건에 분노하면서 팔루자 지역의 반군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작전명이 ‘단호한 결의(Operation Vigilant Resolve)’라고도 불리는 것에서 드러나듯 미국은 미국인에 대한 살해와 잔인한 행위의 철저한 응징을 위해 사전 이라크 통치위원회와 협조하지 않았고 작전지역 주민들에게도 전쟁 전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미군은 이라크인에 대한 반감으로 작전수행 간 민간인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수니

과 세력의 폭동으로까지 이어졌다.

미군이 공격을 개시했을 때, 약 2,000여명의 반군들이 로켓포, 기관총 등을 이용해 거세게 저항하였다. 미군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갑차, 포병과 같은 중(重)화력 무기를 사용하여 작전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라크 평화네트워크의 주장에 따르면 미군의 팔루자 공격 간 저격수들이 거리의 많은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함으로써 군인을 비롯해 어린 아이들까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²²⁾

반군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아랍 언론을 통해 민간인 피해를 부풀려 선전하였다. 이로 인해 이라크 내에서는 미군에 대한 반감 증대와 함께 이라크 통치위원회는 미군에게 즉각 전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2004년 4월 9일 미군은 공격을 중지하였다.

2) 대반란전 실패 요인

미군이 안정화작전에 들어가면서 대반란전 초반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겪었던 이유는 그들이 대반란전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차 팔루자 전투는 미군이 이라크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대반란전 전투사례로, 3가지 측면에서 실패요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반란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소탕-장악-건설’의 과정이 필요한데 1차 팔루자 전투의 경우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이 이루어졌다. 1차 팔루자 전투에서 소탕중심으로 작전이 수행된 데에는 대반란전 수행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도

22) Mockiatis Thomas R, The Iraq War : A Documentary and Reference Guide, Green Wood (2012)

하나의 원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인 4명을 살해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매단 사건에 대한 미국의 분노가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소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노는 기존의 미군이 갖고 있던 이라크 인에 대한 ‘Insurgents’ 집단이라는 타자화 된 인식과 중복되면서 소탕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해병대 지휘관이던 매티스(James Mattis) 소장과 콘웨이(James T. Conway) 중장의 건의와는 상반되게 부시 행정부는 팔루자 지역을 소탕하기 위한 공세를 명령하였다.²³⁾

둘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이다. 대반란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동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시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전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1차 팔루자 전투에서 미군은 작전을 개시하기 전 민간인을 대피시키거나 우려되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지휘계통상으로 내려온 지침은 무자비한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성은 고려되지 않았다.²⁴⁾

셋째,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을 들 수 있다. 미군은 1차 팔루자 전투 간 ‘반란전’에 대응한 소규모 분권화된 작전이 아닌 기존 미군이 추구하던 바그다드 점령시까지의 모습 그대로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소총과 로켓포 정도로 무장한 반란군에 대항한 미군의 장비는 대부분 중(重)화력 무기였다. 해병대 지휘관들은 전투원들의 사상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그들의 전통적 합동작전 교리에 따라서 포병, 공중 공격, 그리고 탱크를 사용하였다.²⁵⁾

23) 손석현, 앞의 책, p.203.

24) 위의 책, p.204.

25) 위의 책, p.204.

나. 2차 팔루자 전투

미군은 이라크에서의 안정화 작전 초기 대반란전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전(全) 영역 대반란 작전’이란 용어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2004년 8월 5일 발간된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 계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연합군은 더 이상 점령군이 아니며 대신 이라크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유엔결의안을 이행하는 개념이다.²⁶⁾ 이를 통해 미군은 2차 팔루자 전투와 탈 아파르 전투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였다.

1) 전투개요

2차 팔루자 전투는 미군이 1차 팔루자 전투의 실패 경험과 교훈을 고려해 전투를 계획하였고, 무엇보다 반군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따라서 전투 시작 전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도록 경고방송을 하였다. 또한, 팔루자 지도자들과의 전투 시작 전·후 협조를 통해 반군과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도 기여하였다.

2004년 11월 7일 시작된 작전은 공중전력의 지원하에 재래식 전력으로 공격을 실시해 12월 말 약 2,000여명의 반군을 제압하면서 종결되었다. 전투 결과 미군, 영국군, 이라크 정부군 등 연합군 107명이 전사했고, 이라크 반군은 1,200~1,500명이 전사하였다. 민간인은 800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투 이전에 존재했던 3만 9,000여 동의 건물 가운데 1만 8,000여 동의 파손되었다.²⁷⁾

26) 위의 책, p.208.

27) 이근욱, 앞의 책, p.159.

2) 대반란전 성공 요인

전투개요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차 팔루자 전투는 1차 팔루자 전투와는 다른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대반란전을 수행함으로써 종결됐다. 2차 팔루자 전투에서 대반란전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첫째,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이 아닌 ‘소탕-장악-건설’의 3단계 작전수행, 둘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한 작전수행, 셋째, 이라크 군과 연합한 작전수행을 들 수 있다.

첫째, ‘소탕-장악-건설’의 3단계 작전수행이다. 미군은 안정화 작전 초기 계속해서 목표지역에 대한 소탕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단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에 따라 작전이 최종적으로 성공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차 팔루자 전투에서는 소탕작전 이후 그 지역에 대한 확실한 장악을 통해 치안과 주민 생명을 보호하였고,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재건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획득하였다. 2차 팔루자 전투에서는 전투가 종료된 후 이라크 정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재건과 피해 보상을 위해 1억 8천만 불을 제공했고, 미군은 사회 인프라 재건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도시 안정화와 함께 2005년에는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동참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단순히 전투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이후 안정적인 지역 확보와 재건 지원을 함으로써 토착 세력의 마음을 얻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한 작전수행’이다. 제2차 팔루자 전투에서는 1차 전투와 달리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둬서 시작부터 다른 접근방식을 보였다. 모든 민간인들에게 전단, 라디오 방송, 구두 메세지 전달 등을 통해 도시를 떠나도록 경고하였다. 25만 명의 주민 중 최종

적으로 5,000여 명만 남았다.²⁸⁾ 사전 민간인을 대피시킴으로써 작전 수행 간 민간인 인명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고, 작전 수행 간에도 정밀 폭격 등을 피해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반군세력 제압에 초점을 두었다. 민간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포용함에 따라 토착 주민들도 미군에게 정보제공 등으로 협력하였다.

셋째, 토착 정부와 연대한 작전수행이 이루어졌다. 제2차 팔루자 전투에서는 제1이라크 여단과 제3이라크 여단이 미 제1해병 연대, 미 제7해병 연대, 그리고 블랙 잭 여단과 함께 참전하였다. 이라크 군과의 연합 작전은 이라크 인들로 하여금 미군의 작전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켜 주는 한편, 반란군의 반란활동 명분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²⁹⁾

다. 탈 아파르 전투

1) 전투개요

탈 아파르 전투는 맥마스터(H. R McMaster) 장군이 이끄는 제3기갑수색연대와 이라크 제 3사단의 연합작전으로 3단계(소탕-장악-건설)로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소탕단계’를 통해 미군은 작전 수행 이전부터 1,500회 이상의 정찰과 111회의 탐색격멸, 46회의 습격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라크의 북서부 국경 지역에 근접한 탈 아파르는 외부 지원세력의 지원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 사이의 국경지대에 장벽을 설치하고 검문소를 운영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반군에게 들어가는 물자를 차단하였다. 어느 정도 반군에 대한

28) 손석현, 앞의 책, p.211.

29) Hoffman, Bruce, *Insurgency and Counterinsurgency in Iraq*, Rand Corporation(2004), p.72.

고립과 물자 차단이 이루어지자 정밀 타격 무기의 타격과 수색 정찰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1단계 작전을 종결하였다.³⁰⁾

2단계 ‘장악단계’에서는 고립된 적에 대한 제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지역에 대한 확보를 통해 치안유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에 주민들도 연합군에 대한 호의를 보이며 반군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이에 화답하였다.

3단계에서는 오랜 내전과 전투로 인해 피폐해진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재건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라크 정부와 미군 민사작전부대는 6천만 달러를 투입해 수도, 건물 등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였다. 안정적인 재건활동과 민사지원 활동은 아파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더욱더 연합군을 신뢰하도록 만들었고, 이곳은 점차 안정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맥마스터 장군이 보인 3단계의 ‘소탕-장악-건설’의 작전 수행은 이라크 전쟁에서 대반란전 수행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적인 지표가 되었고,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반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교훈을 준 사례가 되었다.

2) 대반란전 성공 요인

첫째, ‘소탕-장악-건설’의 3단계 작전수행이다. 탈 아파르 전투에서 미군 제3기갑연대 지휘관인 맥 마스터 대령은 탈 아파르의 작전을 ‘소탕-장악-건설’의 3단계로 구분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소탕 단계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강력한 소탕을 실시한 후, 소탕 지역에 대한 장악을 통해 치안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단계에서는 지역의 피해 복구나 인프라 재건사업을 진행하였다.

30) 손석현, 앞의 책, p.214.

둘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한 작전수행’이다. 맥 마스터 대령은 작전수행 간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고, 표적에 대한 타격에 있어서도 정밀타격 위주로 수행하였다. 소탕작전을 통해 반군세력을 일정부분 제압한 이후 장악단계에 들어서는 치안확보와 주민 안전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로부터 미군에게 반군의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더욱 원활하게 잔존하는 반군세력들을 제압 할 수 있었다. 맥마스터 대령은 “우리는 시민 대다수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었다”며 팔루자에서의 성공의 열쇠는 민중의 지지라고 하였다.³¹⁾

셋째, 토착 정부와 연대한 작전수행이 이루어졌다. 탈 아파르 작전은 미군 3기갑연대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이라크 제3사단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였다.³²⁾ 이와 같은 연합 작전은 이라크 인들로 하여금 미군의 작전에 대한 반감을 덜 갖게 했고, 외부 침략세력에 대응한다는 반란군의 명분을 약화시켰다.

넷째,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이 아닌 정찰, 탐색격멸, 습격 위주의 작전을 실시하였다. 대반란작전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작전지역 내 반란세력과 민간인을 구별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군은 1,500회 이상의 정찰, 111회의 탐색격멸, 46회의 습격을 실시하였다. 또한, 민간인과 분리된 반란세력을 고립시킨 후 정밀 수색정찰을 통해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라. 1·2차 합동진격작전

1) 전투개요

2005년 이라크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래 수니파와 시아

31) Catherine Dale 저, 육군군사연구소 역, “이라크 자유작전 미 의회 보고서”, 육군군사연구소(2011), pp.109~112.

32) 손석현, 앞의 책, p.211.

과 간의 종파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2006년 2월 22일 새벽 6시 55분 두 차례의 대규모 폭탄공격으로 사마라에 위치한 아스카리야 사원이 파괴³³⁾되었다. 아스카리야 사원은 시아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성지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시아파 입장에서는 미국의 9·11 테러와 같은 큰 충격으로 다가 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아파 민병대와 바드르 군단은 수니파에 대한 보복을 결심하였고, 바그다드는 이전보다 더욱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혼란을 진압하기 위해 미군은 바그다드에 대한 2차례의 작전을 수행하였다. 합동진격 작전에는 이라크 군과 연합군을 합해 약 48개 대대가 동원됐다. 이는 총 51,000여 명의 규모로서 이라크 경찰 약 34,000명, 이라크 육군 8,500명, 연합군 7,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³⁴⁾

1차 합동진격작전은 2006년 6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개된 작전으로 작전결과 치안확보에 실패하고 오히려 종파간의 갈등과 폭력, 테러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미군은 같은 해 8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차 합동진격작전을 개시하였다.³⁵⁾ 하지만, 2차 합동진격작전도 많은 사상자만 발생하고

33) 이라크 사마라에 있는 아스카리야 사원은 시아파 이슬람교의 가장 거룩한 성지 가운데 하나. 이 사원에는 존경받는 두 이맘(Imam)의 무덤이 존재하는데 이슬람교도들은 숨은 이맘이 인류에게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구세주로 믿고 있었음. 그런데 2006년 2월 22일 새벽 6시 55분 두 차례의 대규모 폭탄공격으로 사원이 파괴되었음. 이라크 특수부대 제복을 입은 8명의 인원이 사원에 잠입해 경비원을 포박한 다음 2개의 폭탄을 설치하여 사원을 폭발시킨 후 사라짐. 수니파로 추정된 이들의 공격은 시아파 입장에서는 미국의 9·11 테러와 같은 큰 충격이었음.(John A. Nagle, *Learning to eat soup with knife : Counterinsurgency Lessons from Malaya and Vietnam*, University of Chicago Press(2002), p. 173, Daniel Marston and Carter Malkasian, *Counterinsurgency in Modern Warfare* Osprey Publishing(2008), p.133.)

34) 손석현, 앞의 책, p.227.

35) Mockiatis Thomas R, op. cit., p.94.

혼란 상황을 정리 하지 못하면서 실패한 작전으로 끝났다.

이 작전에서 미군 81명, 이라크군과 경찰 200명이 사망했으며 약 14,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³⁶⁾ 이러한 절망적인 결과는 미군으로 하여금 다시금 이라크 전쟁 수행 방식에 있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후 증파를 선택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대반란전 실패 요인

2차례의 합동진격작전 실패에는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이라크군의 역량 부족과 미군의 병력 부족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주요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이다. 작전 수행에 있어서 연합군은 ‘소탕-장악-건설’ 단계의 과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소탕작전을 실시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반군 세력에게 다시금 점령지역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는 미군의 병력부족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합했던 이라크 군의 작전수행 능력 부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둘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이다. 아스카리아 사원 테러 이후 격앙된 종파간의 갈등 속에서 효과적인 주민 통제와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 콜드웰(William Caldwell) 소장의 2006년 10월 발표에서 “폭동 분자들과 극단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저항 한 것”³⁷⁾이라는 설명에서 보듯이 민간인과 반군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즉, 민간인들에 대한 사

36) 손석현, 앞의 책, p.228.

37) 위의 책, p.227.

전 전투 홍보 부족으로 작전지역을 이탈할 기회가 없었고, 반군과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가 수행되다 보니 많은 민간인 피해와 함께 작전이 실패한 것이다.

셋째,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수행’이다. 합동진격작전 또한 1, 2차 팔루자 전투와 같이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에 중점을 둔 군사작전이 이루어졌다. 합동진격작전에는 총 51,000여 명의 대규모 병력과 전차, 포병, 장갑차 등 화력의 증강이 이루어졌으며, 전투수행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국가 간에 이루어지던 재래식 전투수행 방식에 의존하였다. 이는 결국, 저항세력의 ‘반란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대반란전 실패 요인 분석

가. 미군의 대반란전 실패 요인

앞서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4가지의 전투사례를 통해 사례별 실패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요인에 의해 대반란전에서 실패하고 성공했는지 알 수 있었다. 위 사례에서 도출된 미군의 이라크 전쟁 간 대반란전 실패요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이다. 대반란전에서는 적에 대한 군사적 제압 이후에 그것으로 작전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소탕된 지역에 대한 확실한 장악을 통해 치안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소탕 작전간 발생한 민간 피해에 대한 복구와 재건지원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군들은 상대

적으로 강력한 화력을 통해 반군세력들을 제압한 이후 그 지역을 떠나거나 안정적인 장악과정을 거치지 못함에 따라 실패하였다.

둘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으로서 대반란전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투를 시작하기 전 민간인에 대한 대피명령과 홍보는 전투 개시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전투 간에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된 핵심 표적 위주로 정밀 타격을 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이라크인에 대한 ‘야만, 열등’한 대상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벗어나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해주었고, 이는 또다시 이들로부터 호의적인 협조를 이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³⁸⁾

셋째, ‘미군 단독 작전 수행’이다. 미군은 이라크 전쟁 초기에는 부분적으로 단독 작전을 수행하다보니 반군세력들에게 ‘외국군 철수’라는 명분을 주게 되고, 주민들에게도 상당부분 미군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후 미군은 대부분의 작전에서 이라크 정부군과 연합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4가지 전투사례에서는 ‘토착 정부와 연대한 작전수행 미실시’ 사례는 없었다.

넷째,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수행’이다. 저항세력의 반란활동은 기존의 국가대 국가사이에서 벌어지던 재래식 군사력을 활용한 전면적인 전쟁 양상이 아니다. 이들은 비국가 행위자로서 대부분 소규모 게릴라 활동이나 테러와 같은 형태로 활동하다 보니 기존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8) 페트리어스 등은 반군에 대응하기 위한 대반란전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투쟁이라고 보았다.(박영준, “미국의 대반란전 전략 전개와 한국 국방전략에의 함의”, 『국가전략』 제22권 2호(2016), p.19.)

나. 대반란전 실패 요인 분석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수행한 대반란전에 영향을 미쳤던 4가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반란전 실패요인이 각 전투사례에서 작용하였는지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³⁹⁾

<표-3> 이라크 전쟁 전투 사례별 대반란전 실패요인 비교분석

작용 : ○, 미작용 : ×

구 분	1차 팔루자 전투	2차 팔루자 전투	탈 아파르 전투	합동진격작전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	○	×	×	○
민간인 피해 미 고려	○	×	×	○
미군 단독 작전수행	×	×	×	×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	○	×	○
전투 결과	실패	성공	성공	실패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4가지 전투사례를 4가지 실패요인으로 분석했을 때, 대반란전에 있어서 1차 팔루자 전투와 합동진격작전은 실패한 전쟁이었으며, 2차 팔루자 전투와 탈 아파르 전투는 성공한 전투로 구분이 된다. 1차 팔루자 전투와 합동진격작전의 실패 원인으로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으로 ‘장악-건설’ 단계의 작전이 연계되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와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 모두 실패한 것을 볼 수 있다.

39) 각 전투별 성공과 실패를 분석함에 있어서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은 ‘미군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분석 하였다.

한편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은 실패한 전투였던 1차 팔루자 전투와 합동진격작전의 공통된 실패요인이긴 하나 2차 팔루자 전투에서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작전이었던 점을 고려 시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이 대반란전 실패의 필수 요인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라크 전쟁에서의 대반란전 실패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작용했던 일반화가 가능한 요인은 ‘타자화 요인’으로서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과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이 된다. 장악단계에서 점령지역에 대한 확실한 통제를 통한 토착 주민의 안전 확보와 치안유지를 통해 다시금 이 들로부터 정보획득과 반군분리에 있어서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건설단계를 통해서 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요인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한 작전수행’ 여부에 있어서 살펴보면, 민간인들은 결국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주는 세력에게 의존하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수행 간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반군세력으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치안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을 우리의 편으로 만드는 것은 대반란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두 가지 실패요인은 결론적으로 이라크와 이라크 인에 대한 미국의 타자화 된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을 작전수행과정에서 포용함으로써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승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 론

미군은 약 30여년 전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공의 반란전 활동에 대응해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 발전이 미흡하였던 결과로 다시 한 번 이라크 전쟁 안정화 기간 내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라크 전쟁에서 발생했던 4가지 전투 사례 분석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대반란전 실패 요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이다. 이라크인에 대한 타자화로 형성된 “Insurgents”라는 인식은 반란군과 민간인에 대한 구분 없이 하나의 소탕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결국 토착세력의 지지 획득에 실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은 공격지역에 대해 상당부분 반군을 제압하고 점령하였으나, 이후 ‘장악과 건설’ 단계를 누락함에 따라 미군들이 떠나간 자리에 반군들이 다시 돌아와 점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으로 ‘이라크인=야만, 열등’이라는 타자화된 인식은 이라크 민간인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대반란전에서는 반군세력들이 민간인들과 혼재되어 작전수행을 함으로써 연합군의 작전을 어렵게 하였고, 이 가운데서 민간인들의 피해를 증대시켰다. 따라서, 작전을 개시하기 이전에 주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전 대피를 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토착 정부와 연대한 작전수행 미실시’이다. 미군의 안정화 작전 초기 실패요인 중 하나로서 미군의 단독 작전을 들 수 있다. 미군의 단독 작전은 반군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 할 명분으로서 미군이라는 외세축출을 주장할 수 있게 해주었고 민간인들에게도 외국군에 의한 작전수행에 거부감을 갖

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미군의 노력으로 인해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대부분 이라크군과의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

넷째,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수행’을 들 수 있다. 저항세력의 반란활동은 기존의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재래식 군사력을 활용한 전쟁 양상이 아니다. 저항세력들은 대부분 소규모 게릴라 활동이나 테러와 같은 형태로 활동하다 보니 기존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기존 자신들이 수행해오던 재래식 전투방식에 입각해 포병, 공중 공격, 그리고 탱크 위주의 군사력을 사용하였다.

이 네 가지 전투사례 가운데 실패했던 1차 팔루자 전투와 합동진격작전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했던 실패요인은 작전수행 과정에 있어서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과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앞서 분류한 “타자화 요인”으로서 이라크 인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형성을 통해 이들을 배제한 가운데 작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도착세력들로 하여금 미군에게 정보 제공, 군사적 협조 등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반란전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은 실패한 전투였던 1차 팔루자 전투와 합동진격작전의 실패요인이긴 하나 2차 팔루자 전투에서 적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작전이었던 점을 고려시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이 대반란전 실패의 필수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반테러전쟁의 표적으로서 만든 이라크에

대한 ‘악의 축’이라는 이미지와 대량살상무기 보유, 독재로 인한 인권 탄압으로 그려진 타자화 된 이라크의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실제로는 바그다드 점령 후 대량살상무기는 찾지 못함으로써 미국의 전쟁 명분이 일정부분 잘못되었다는 점을 드러냈다. 전쟁 이후 안정화작전에서는 이라크 인을 단지 ‘저항세력 (Insurgents)’으로 인식하였다. 결국, 소탕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작전을 수행했고, 이후 치안유지나 재건부분은 누락되었다. 이와 같이 이라크와 이라크인에 대한 타자화 된 이미지는 미국의 대반란전 수행 간 토착 주민들을 배제하였고 이는 실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금까지 이라크전에서 미군의 대반란전 실패 요인을 ‘타자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물론 미군의 대반란전 승패여부가 전적으로 필자가 분석한 ‘타자화에 따른 토착 주민 배제, 소탕대상으로의 인식 등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필자도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반란군과의 끊임 없는 전투가 이루어지는 대반란전에 있어서는 전투의 승패여부를 좌우하는데 단순히 전투력이라는 유형적 요소 외에 작전지역 주민의 지지와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토착 세력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타자화’ 된 왜곡된 시각으로의 접근이 아닌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대부분의 대반란전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이상에서 본 미국의 대반란전 실패요인은 장차 한반도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국군의 대반란전 임무수행 가능성과 해외 파병 임무를 고려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재래식 전쟁 양상에만 국한되어 교리가 발전해왔고 훈련되어 왔지만 이제는 새

로운 시각에서 대반란전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원고투고일 : 2018. 7. 6, 심사수정일 : 2018. 8. 15, 게재확정일 : 2018. 11. 19)

주제어 : 오리엔탈리즘, 타자화, 대반란전, 이라크전쟁

〈참 고 문 헌〉

- Edward W. Said 저,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1991)
- 오정석, “이라크 전쟁 : 전쟁의 배경과 주요 작전 및 전투를 중심으로”, 연경문화사(2014)
- 이근욱, “이라크 전쟁 : 부시의 침공에서 오바마의 철군까지”, 한울(2011)
<http://uci.or.kr/G901:A-0006358009>
- 손석현, “대반란전 사례연구 :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대반란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6)
<http://uci.or.kr/G901:A-0006611549>
- 노암 촘스키 저, 이수현 역, “미국의 이라크 전쟁 : 전쟁과 경제제재의 참상”, 북막스(2002)
<http://uci.or.kr/G901:A-0006037746>
- Catherine Dale 저, 육군군사역군소 역, “이라크 자유작전 미 의회 보고서”, 육군군사연구소(2011)
<http://uci.or.kr/G500:1310377-02012041511683>
- 이근욱, “Counterinsurgency Warfare and the American War in Iraq”, 신아세아 제13권 제1호(2006)
<http://uci.or.kr/G300-j12260096.v13n1p90>
- 박영준, “미국의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전략 전개와 한국 국방전략에의 함의”, 국가전략 제22권 2호(2016)
<http://uci.or.kr/G901:A-0003984810>
- 이성훈, “대반란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관련 행위자 요인을 중심으로”, 국방정책 연구 제31권 제3호(2015)
<http://uci.or.kr/G704-001646.2015.31.3.008>
- 황인성, “텔레비전의 미·이라크 전쟁 보도와 미국식 오리엔탈리즘 : KBS 텔레비전 뉴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2004)
<http://uci.or.kr/G901:A-0001906727>
- 나종남, 박일송, “이라크 전쟁 중 대반란작전(COIN Operations) 사례 연구 : 1·2차 팔루자 전투(2004)를 중심으로”, 군사연구(2014)
<http://uci.or.kr/G704-SER000002076.2014..137.003>

- 육군교육사령부, “야전교범 3-0-1 군사용어사전”, 육군본부(2012)
- 합동참모대학, 미 합동교범 3-24, “대빈란작전(Counterinsurgency Operations)”, 합동참모대학 번역본(2010).
- US Joint Chiefs of Staff, JP 3-24 Counterinsurgency, US Joint Chiefs of Staff(2013)
- US Army, FM 3-24 Insurgency and Countering Insurgency, US Army(2014)
- Fitzgerald Davis, *Learning to forget : US Army counterinsurgency doctrine and practice from Vietnam to Iraq*, Stanford University Press(2013)
- Mockiatias Thomas R, *The Iraq War : A Documentary and Reference Guide*, Green Wood(2012)
- Beckett Ian F. W, Pimlott John, *Counterinsurgency Lessons from History*, Pen & Sword Military(2011)
-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Iraq Reconstruction, *Hard Lessons: The Iraq Reconstruction Experience: The Iraq Reconstruction Experience*, Us Independent Agencies and Commissions(2009)
- Dale Catherine, *Operational Iraqi Freedom : Strategies, Approaches, Results, and Issue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09)
- Hoffman, Bruce, *Insurgency and Counterinsurgency in Iraq*, Rand Corporation(2004)
- Codesman, Anthony H, *The Iraq War : Strategy, Tactics, and Military Lesson*, Praeger(2003)
- Fontenot, Gregory, E. J. Degen, David Tohn, *On point : The United States Army in Operation Iraqi Freedom*, Naval Institute Press(2005)
- James D. Kiras, *Irregular Warfare : Terrorism and Insurgency, Strategy in the Contemporary World*, KIRAS(2007)
- Bard E, O’Neil, *Insurgency and terrorism : Inside Modern Revolutionary Warfare*, Potomac Books(2001)

- A. A. Cohen, Galua, *The Life and Writings of the French Officer Who Defines the Art of Counterinsurgency*, PRAEGER(2012)
- David Petraeus, James F. Amos, *Counterinsurgency Field Manual*, Signalman Publishing (2009)
- John A. Nagle, “Learning to eat soup with knife : Counterinsurgency Lessons from Malaya and Vietnam”, University of Chicago Press(2002)
- Daniel Marston and Carter Malkasian, “Counterinsurgency in Modern Warfare” Osprey Publishing(2008)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2008),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e1ee3a3d2e841128657c40b887cb936>(검색일 : 2018. 10. 22)
- 권형우, “오리엔탈리즘 : 동양이란 이름의 덫”, 연세춘추(2015),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8514>(검색일 : 2018. 10. 23.)
- <https://ko.wikipedia.org/wiki/%ED%83%80%EC%9E%90%ED%99%94>
(검색일 : 2018. 6. 7.)
- <https://ko.dict.naver.com/entry/80340813/타자화>(검색일 : 2018. 8. 10.)

<Abstract>

A Study on the Counter-Insurgency Failure Factors of the U.S. Army in the View of Orientalism : Focused on Iraq War Case

Park, Byeung-chan

The United States has not systematically organized and developed experiences and lessons of failure since the failure of the counterinsurgency in the Vietnam War more than three decades ago. Since then, the United States has been confronted with a new war that was unexpected, though on May 1, 2003, when President Bush declared that "major battles in Iraq were over", the war seemed to be a successful ending. The response of the US military responding to the insurgent's insurgency was still limited to the conventional way of conducting combat, so it was once again a failure.

Thus, this study will analyze the factors that led to the failure of the United States to revive the counterinsurgency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ization' of Orientalism. The United States looked at Iraq with distorted views created by its 'Otherization' of Iraq and Iraq people. In the end, it was separated from indigenous inhabitants and approach from the viewpoint that it could not bring back the support of residents.

Based on the four battle cases that took place during the Iraq war for analysis, we will compare the four failure factors to see what factors have failed or succeeded in the battle. As the comparative factors, the first, 'Execution of the operation centered on the sweeping', the second, 'The operation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civilian damage', the third, 'Execution of the US military

independent operation', and the fourth, 'Execution of the large conventional military oper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factors of failure of the US Army's counterinsurgency, the factors that can be generalized as common cause of the counterinsurgency failure in Iraq are the 'execution of the operation centered on the sweeping' and 'the oper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civilian damage.'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the 'large-scale conventional military operation' was a failure factor of the first Falluja battle and joint strike operation, considering that it was a successful operation even though it was applied in the second Falluja battle, 'large-scale conventional military operation' did not become a necessary factor for the failure of the counterinsurgency.

Key words : Orientalism, Otherization, Counter-Insurgency, Iraq War

